

2018학년도 3월 모의고사 빈칸추론 문항 해설

31. Recent research by Juliet Zhu and J. J. Argo suggests that making subtle changes to the seating arrangements in meetings can have an effect on what people choose to focus their attention on. For example, the study found that circular seating arrangements typically activated people's need to belong. As a result, they were more likely to focus on the group's collective objectives and be persuaded by messages and proposals that highlighted group benefits rather than benefits to any one individual. This effect was reversed, however, when the seating arrangement was either angular (think L-shaped) or square. These seating arrangements tended to activate people's need for _____. As a result, people were more responsive and reacted more favorably to messages and proposals that were self-oriented and that allowed them to elevate their individualism.

- ① uniqueness ② safety ③ certainty
④ harmony ⑤ fairness

* RT[X → Y의 시각으로 빈칸부분을 구조화하는 부분입니다.]

▶ These seating arrangements tended to activate people's need for _____.

- activate가 방향성이 명확한 동사 부분입니다. 이를 구조화하면,

▶ These seating arrangements → people's need for _____.

☞ [이러한 좌석 배치] → 사람들의 ()을 향한 필요를 활성화

- 앞에 언급된 이런 좌석배치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빈칸입니다.

* CP[관계항의 시각을 가지고 맥락을 통해 대응어들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Recent research by Juliet Zhu and J. J. Argo suggests(실험 · 조사문이네요. 이후의 구조는 실험문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차별적 조건 설정 - 차별적 결과 발생 - 실험의 교훈]일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that making subtle changes to the seating arrangements in meetings can have an effect on what people choose to focus their attention on.(have an effect on의 방향성에 착안하여 정리하면, [좌석배치의 변화 → 사람들이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영향])(좌석배치의 변화는 우리의 빈칸인 이러한 좌석배치와 연결점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란 표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겠다는 암시적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 구도에 채워 넣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사항입니다.)

▶ For example,(같은 얘기가 이어집니다. 글을 읽을 땐 항상 이러한 연결사를 통해 하나의 작은 단락이 앞의 단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the study found that circular seating arrangements typically activated people's need to belong.(activated의 방향성에 착안하여 정리하면, [회전형 배열 → 소속감의 필요성 활성화]입니다.)

▶ As a result,(그 결과) they were more likely to(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로 결과, 즉, Y부분입니다.) focus on the group's collective objectives(앞의 것을 끌어다 쓰면 [회전형 배열 (→ 소속감의 필요성 활성화) → 집단의 목표에 좀 더 집중] * 앞부분에서 암시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네요.) and be persuaded by messages and proposals that highlighted group benefits rather than benefits to any one individual.(앞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rather than을 통해 집단과 개인이 대립구도를 이룸을 알 수 있습니다.)

▶ This effect was reversed(그 효과가 뒤집히네요.), however,(친절하게 역접임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when(상황을 나타내므로 X장치일 수 있습니다.) the seating arrangement was either angular (think L-shaped) or

square.(앞의 것과 다른 배열일 때... 즉, 그 때 앞의 효과가 뒤집히네요. ‘집단의 목표에 집중’의 반대말은 개인의 목표겠죠. 앞 문장에서도 rather than을 통해 대립되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의 근거는 ‘개인’입니다.)

+ 이 부분에서 대립항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정답의 근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립항의 구도란,

대립항 원리	활용	
$\begin{array}{ccc} B: & -X & \rightarrow & -Y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 A: & X & \rightarrow & Y \end{array}$	$\begin{array}{ccc} B: & -X & \rightarrow & -Y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 A: & (?) & \rightarrow & Y \end{array}$	$\begin{array}{ccc} B: & -X & \rightarrow & -Y \\ \downarrow & \downarrow & \downarrow & \\ A: & X & \rightarrow & (?) \end{array}$

인데요. 이는 **대립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위와 같은 도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측과 같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 These seating arrangements tended to activate people’s need for _____.(빈칸문장)

▶ As a result, people were more responsive and reacted more favorably to messages and proposals that were self-oriented and that allowed them to elevate their individualism.(밑줄 부분이 추가적인 근거입니다.)

* BE[선지에 진입하기 전에 빈칸요소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 **개인적인 것, 이기적인 것**

- | | | |
|--------------|------------|-------------|
| ① uniqueness | ② safety | ③ certainty |
| ④ harmony | ⑤ fairness | |

☞ **정답은 ①번입니다.**

32. Much of the communication among chimps, as for animals in general, is _____. One prime example involved six young chimpanzees being studied in the 1970s at the Delta Primate Research Center. One of them (we'll call him the "leader") was introduced alone into an enclosure and shown either a hidden source of food or a stuffed snake. When this chimp was reunited with his fellows outside the enclosure, they quickly resumed their normal activities. There was no readily apparent sign that the leader communicated his important knowledge to the other chimps. Yet, when all six were allowed into the enclosure after the leader had been shown food, the group headed straight for the food. In the "snake" condition, the chimps all entered the enclosure with the fur on their backs spiking up and approached the danger zone with extreme caution, poking at the leaf bed with sticks rather than with their hands. Either the leader chimp had conveyed the information to the others, or they were superbly attuned to his intentions. [3점]

* enclosure: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

- ① affected by their habitat
- ② too subtle for us to notice
- ③ rarely relationship-oriented
- ④ readily open to other species
- ⑤ surprisingly inferior to that of ours

* RT[X → Y의 시각으로 빈칸부분을 구조화하는 부분입니다.]

▶ Much of the communication among chimps, as for animals in general, is _____.

☞ **침팬지의 의사소통** → ()

* 이 이하에선 침팬지의 의사소통이 어떤 특성이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에 집중하며 읽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X는 '침팬지의 의사소통'입니다. 실전에선 이런 부분을 놓치고 글의 스토리에 맡겨 읽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을 다 읽어놓고도 정답을 못 찾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 CP[관계항의 시각을 가지고 맥락을 통해 대용어들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One prime example(예시가 이어짐을 예고합니다.) involved six young chimpanzees being studied in the 1970s at the Delta Primate Research Center.(여섯 마리 침팬지의 이야기네요. 예시나 연구조사문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므로 긴 호흡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승전결 또는 조건-결과-교훈이라는 예시 또는 실험 • 조사문의 본질상 문장하나 어구하나보다는 단락의 전체취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One of them (we'll call him the "leader") was introduced alone into an enclosure and shown either a hidden source of food or a stuffed snake.(실험의 조건 설정 부분입니다. 음식과 뱀?)

▶ When this chimp was reunited with his fellows outside the enclosure, they quickly resumed their normal activities.(울타리 밖에서 다시 모였을 때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앞의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읽으면 울타리 안에서 얻은 '정보를 소통하지 않았다'로 읽힙니다.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오네요. 즉, **[침팬지의 의사소통 → (하지 않는다.)]**)

▶ There was no readily apparent sign that the leader communicated his important knowledge to the other

chimps.(비슷한 취지입니다. [침팬지의 의사소통 → (했다는 표시가 없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 Yet,(역접입니다. 이야기가 뒤집히네요.) when all six were allowed into the enclosure(모두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상황이 변화합니다.) after the leader had been shown food, the group headed straight for the food.(이때 모두 음식 쪽으로 가네요? 리더가 정보를 전달한 것인가요?)

▶ In the “snake” condition,(하지만, 뱀일 때엔?) the chimps all entered the enclosure with the fur on their backs spiking up and approached the danger zone with extreme caution, poking at the leaf bed with sticks rather than with their hands.(극도로 긴장하며 대하네요. 이것도 리더가 정보를 전달한 것인가요?)

▶ Either the leader chimp had conveyed the information to the others, or they were superbly attuned to his intentions.(정보를 전달했거나 리더의 의도에 절묘하게 들어맞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음... 뭐죠? 이 부분도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즉, [침팬지의 의사소통 → 했거나 그것과 다른 침팬지의 행동이 우연히 들어맞았거나 = 하지 않았거나])

* BE[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정답의 근거를 정리해 빈칸요소를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 우리의 X인 침팬지의 의사소통을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해 보면

① 모두가 모인 곳이 울타리 안팎인 것에 따라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글의 전체 취지를 보면 울타리 밖일 때는 소통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울타리 안에 모두 모였다고 하여 정보를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either라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인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것이 그 하나인지는 모르는 상황일 때에 쓰이는 어휘입니다. 따라서 울타리 안이라고 하여 의사소통이 된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② 앞에서 정리한 것들을 보면 [침팬지의 의사소통 → (하지 않는다.)], [침팬지의 의사소통 → (했다는 표시가 없다.)], [침팬지의 의사소통 →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 [침팬지의 의사소통 → 하지 않았거나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입니다.

선지로 들어가면,

① affected by their habitat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울타리 안이라고 하여 의사소통을 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시는 전체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too subtle for us to notice ‘증거를 찾기 어렵다’와 일치합니다. 정답입니다.

③ rarely relationship-oriented (침팬지, 그들 간의) 관계를 지향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이 관계와 관련되는지는 지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④ readily open to other species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정답과 정 반대의 선지입니다.

⑤ surprisingly inferior to that of ours 우열비교의 문제는 아니죠?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문 전체의 시각으로 정답의 근거를 찾아야 했던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3.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s are rewarding because they are not designed _____. If you are taking a highly specialized or vocational degree, you may well know what career you are aiming for even before you get to university, but for most science and technology undergraduates university is an adventure in itself; ideas about a career may be in your thoughts, but not completely fixed. This gives you the advantage of knowing that you can develop your career ideas as your course progresses, aware that your degree will be of help to you in many areas of work. It is perhaps with this in min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 programs tend to be wide in scope and flexible in approach. You might go to university to study chemistry and find yourself doing some work within the physics department. [3점]

- ① to represent a socially privileged status
- ② necessarily to be obtained in the university
- ③ to force you to follow the established scholars
- ④ only to grade you and make you feel frustrated
- ⑤ exclusively to get you into a job and keep you there

* RT[X → Y의 시각으로 빈칸부분을 구조화하는 부분입니다.]

▶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s are rewarding because they are not designed _____.

- because에 착안하여 정리하면

☞ 과학과 기술 학위들은 ()하게 고안되지 않았음 → 과학과 기술 학위들은 보상이 됨.

- 빈칸의 후보자들인 선지의 형식에 힌트를 얻어 과학과 기술 학위들이 고안된 '목적'을 찾아도 되고

- 과학과 기술 학위들이 보람이 있는 이유를 찾아도 됩니다.

* CP[관계항의 시각을 가지고 맥락을 통해 대응어들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If you are taking a highly specialized or vocational degree(직업적, 전문적 학위가 나오네요.), you may well know what career you are aiming for even before you get to university,(대학 졸업 전에도 어떤 직업일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직업적, 전문적 학위 → 대학 졸업 전에도 어떤 직업일지를 알 수 있게 함.]) but(역접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립항의 활용을 상기하세요!) for most science and technology(RT에서 본 과학과 기술입니다.) undergraduates university is an adventure in itself;(그 자체로 모험이다. 즉, 순수한 학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부분은 but을 통해 앞의 직업적, 전문적 학위와는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립항의 활용을 통해 정답의 근거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학위들 → 순수한 과목이다 ≙ (어떤 직업일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님]) ideas about a career may be in your thoughts, but not completely fixed.

주의할 점은 빈칸 앞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s are rewarding because they are **not** designed _____. 즉 부정적 표현이 정답의 근거이지만 빈칸엔 표현의 부정적 부분을 제외한 긍정적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 빈칸과 문맥상 어휘를 풀 때 항상 주의할 것은 빈칸이나 어휘 근처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작 문제는 다 풀어놓고 반대 선지로 가는 우를 범합니다.

----- 이 부분에서 선지를 보니

- ① to represent a socially privileged status
- ② necessarily to be obtained in the university
- ③ to force you to follow the established scholars
- ④ only to grade you and make you feel frustrated

⑤ exclusively to get you into a job and keep you there

----- 직업과 관련된 선지는 5번 하나 뿐이네요.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하를 읽지 않아도 정답의 근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

► This gives you the advantage of knowing that you can develop your career ideas as your course progresses, aware that your degree will be of help to you in many areas of work. It is perhaps with this in min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degree programs tend to be wide in scope and flexible in approach. You might go to university to study chemistry and find yourself doing some work within the physics department.

34. It's a common practice during creativity seminars to give participants a bag full of materials and then a problem to solve. The materials are usually everyday items. Their use is obvious to all. You are then to use those materials in whatever ways you want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there isn't usually an obvious connection between the items and your problem. For instance, maybe you have to figure out how to create a communication device using a hammer, tape, a hairbrush, and a bag of marbles. Most people have a cognitive bias called functional fixedness that causes them to see objects only in their normal context.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eir ordinary way will generally lead to no workable solutions. The really exciting solutions come from overcoming functional fixedness and using these everyday items in new ways. To see the possibilities it is helpful to take the viewpoint that _____. [3점]

- ① good tools make fine work
- ② nothing is what you think it is
- ③ having many options is not a blessing
- ④ the more we know, the more we want
- ⑤ deep learning is composed of small parts

* RT[X → Y의 시각으로 빈칸부분을 구조화하는 부분입니다.]

▶ To see the possibilities(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즉 희망을 본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it is helpful to take the viewpoint that _____. (~하기 위하여와 helpful에 착안하여 구도를 정리하면)

☞ ()의 관점 → 희망을 본다.

* CP[관계항의 시각을 가지고 맥락을 통해 대용어들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It's(가주어입니다.) a common practice during creativity seminars to give participants a bag full of materials and then a problem to solve.(재료들로 가득한 주머니를 주고 문제를 주네요.)

▶ The materials are usually everyday items.(그 재료들은 일상용품!)

▶ Their use is obvious to all.(그 쓰임새는 모두에게 명확함!)

▶ You are then to use those materials in whatever ways you want to solve the problem(이 재료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쓸 수 있다.); however,(반전이 일어납니다.) there isn't usually an obvious connection between the items and your problem.(하지만 어떤 관계가 보이지 않는대요? 즉, 어떤 방법을 써야 문제를 풀지 알지 못한답니다.)

▶ For instance,(예시, 즉 같은 얘기) maybe you have to figure out how to create a communication device using a hammer, tape, a hairbrush, and a bag of marbles.(using과 how to에 착안하여 구도를 정리하면 [망치, 테이프, 빗, 구슬주머니 → 소통의 도구 창조]입니다. 아직 빈칸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 부분의 정보를 정리해 두고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 Most people have a cognitive bias(편견, 즉 안 좋은 얘기를 하겠네요.) called functional fixedness(기능적 고정됨) that causes(방향이 → 명확합니다.) them to see objects only in their normal context.(정리하면 [기능적 고정편향 → 사물을 원래의 맥락(= 용도)로 보게 함.]

▶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eir ordinary way will generally lead to(방향이 명확합니다.) no workable solutions.(정리하면, [기능적 고정 편향 (→ 사물을 원래의 용도로 보게 하여) →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함.]

* 이쯤에서 우리의 빈칸문장을 되돌아보면, 희망을 만드는 것이 빈칸이므로 이 문장과 반대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함

니다. 즉, 기능적 고정편향, 즉 ‘사물의 기능을 고정된 것으로, 일상의 용법으로 보는 것’의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 The really exciting solutions come from(방향이 명확합니다.) overcoming functional fixedness and using these everyday items in new ways.(정리하면, overcoming functional fixedness and using these everyday items in new ways → The really exciting solutions이고 이에 따라 정리하면, [고정편향의 극복 & 사물을 (일상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 진정으로 흥분되는 해결책]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정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 BE[선지에 들어가기 전에 정답의 근거를 정리해 빈칸요소를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 ‘사물의 기능을 고정된 것으로, 일상의 용법으로 보는 것’의 반대 = 고정편향의 극복 & 사물을 (일상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 문제는 선지가 어렵네요.

- ① good tools make fine work 좋은 도구가 훌륭한 작품을 만든다. 빈칸요소는 고정편향의 극복이지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 ② nothing is what you think it is 구문이 어려운데요. 네 생각이 그것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를 순화하면, 네 생각대로인 것은 없다. 여기서 다음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① 네 생각 = 우리가 원래 가진 생각 = 고정된 생각 = 고정편향, ② 없다 = 극복, 이를 합치면, 고정편향의 극복이 되므로 빈칸요소와 일치하는 정답입니다.
- ③ having many options is not a blessing 선택권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 ④ the more we know, the more we want
- ⑤ deep learning is composed of small parts

정답은 ②번입니다.